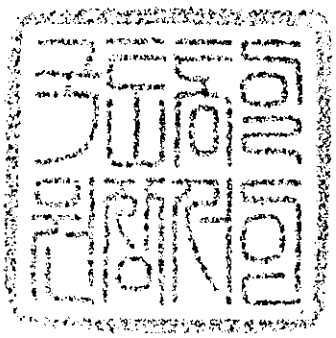
남북한단일문화권형성발전을위한정책적연구



1972. 5

함 병 춘

目　　次

Ⅰ. 緒　論 ——— 3

Ⅱ. 社会文化 統合의　理論的　設定 ——— 5

1. 社会変革의　諸理論 ——— 5

2. 分析的　模型 ——— 10

Ⅲ. 北韓文化構造의　現実性 ——— 14

1. 学術研究領域 ——— 14

(A) 哲学·思想分野 ——— 15

(B) 経済学分野 ——— 16

(C) 自然科学分野 ——— 17

2. 言論과　放送의　実態 ——— 17

(A) 新　聞 ——— 18

(B) 放　送 ——— 18

(C) 雑　誌 ——— 19

3. 教育의　現実性 ——— 19

(A) 学校教育制度 ——— 19

(B) 成人教育制度 ——— 21

(C) 特殊教育制度 ——— 22

4. 体育과　文化施設의　現実 ——— 23

(A) 体力検定制度 ——— 23

(B) 体育의　大衆化 ——— 24

(C) 群衆文化 ——— 24

Ⅳ. 北韓文化構造의　特殊性 ——— 26

1. 生態学的　分析 ——— 26

(A) 文化形成期 ——— 26
(B) 文化構造의 成長期 ——— 29
(C) 文化構造의 安定期 ——— 30
2. 內容分析的 接近 ——— 31
(A) 北韓文化의 価値性 ——— 32
(B) 北韓文化의 意図性 ——— 32
(C) 北韓文化의 現実性 ——— 3
V. 単一文化統合의 政策的 配慮 ———
1. 南北文化構造의 次元的 比較 ———
(A) 創造性 ———
(B) 効率性 ———
(C) 適応性 ———
(D) 永続性 ———
(E) 統合性 ———
2. 統合의 政策的 配慮 ———
(A) 短期的 政策 ———
(B) 長期的 政策 ———
VI. 結 論 ———

본 논문에 수록된 내용은
당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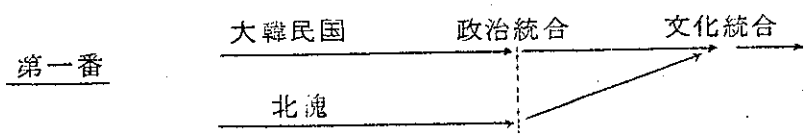
Ⅰ. 緖　　論

本研究는 南北韓의 政治的 統合을 前提로 할 때 必然的으로 야기되는 南北文化의 同一体的 形成을 위한 政策을 摸索하기 위한 것이다. 分断된 南北間의 実態는 単純한 政治的인 異質構造의 形成発展을 이룩한 것 以外에 社会的인 文化的인 異質性이 深化되었음도 지적되어야 한다. 흔히 政治体系가 経済体系의 表象的인 영상으로 理解되고 社会体系의 基底的인 価値体系로 文化体系가 論議되고 있음을 考慮할 때 오늘날 南北間의 異質的 体制化의 再統合은 궁극적으로는 社会文化的인 再統合에로 帰結된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特히 다음 몇가지 項目에 依拠하여 南北社会文化의 統合的 方法을 摸索하려는 것이다. 단지 이러한 南北間의 統合에서 仮想할 수 있는 現象을 중에서 第一番의 方案을 절대적인 命題로 하고 있다.

如何한 形態의 統合도 이러한 方案, 즉 大韓民国의 現実的인 絶対性에로 北韓을 受容統合해야 한다는 것 以外는 論議의 対象이 될 수 없다.

<図表 1>



이러한 事実을 考慮하여 다음과 같이 本研究를 進行하였다.

1. 南北統合의 理論的 設定

統合 또는 南北文化의 性格의 分析에 원용될 수 있는 理論的 接近을 위한 몇가지 「研究의 틀」을 設定하여야 하고 이것은 本

研究의 前年度 論文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여기서는 그 理論을 더 한층 発展 적용한다.

2. 北韓文化의 現実性

막연히 観念的인 측면에서 北韓文化를 論議하기 보다는 具体的인 現実을 分析하여 그 本質의 把握이 先行되어야 한다.

3. 北韓文化構造의 特異性

自由民主主義社会나 非共産社会의 文化構造와는 本質的인 差異를 보여주고 있는 北韓社会의 文化의 特異性을 찾아내고 그 発展性向을 規命한다.

4. 南北韓文化構造의 比較

統合을 前提로 할 때 必然的으로 提起되는 事実은 소위 文化統合過程에서 야기되는 우열의 問題와 先占的 要素와 追従的 要素의 分析이 要求된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주로 文化構造의 内面的인 性格인 ① 創造性, ② 自発性, ③ 参与性, ④ 永続性, ⑤ 協調性, ⑥ 効率性의 측면에서 考察한다.

5. 統合의 政策的 方案

実際로 南北韓의 文化를 統合한다는 絶対性을 前提로 할 때 政策的인 考慮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結論的인 性格으로서 이 問題를 취급한다.

本研究를 進行함에 있어서 흔히 지적되고 있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여기에서도 例外는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資料의 求得이 어려운 점과 獲得한 資料가 이미 時期的으로 価値가 軽減된 것 등은 本研究의 가장 큰 애로였다.

Ⅱ. 社会文化統合의 理論的 設定

異質的인 두 社会以上의 統合에는 人為的인 諸般 조치와 함께 時間的인 경과가 要求된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統合過程에는 最短時日內에 本質的인 融合이 이루어져야 하고 統合過程에서는 별다른 장애점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効果를 얻기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統合의 調整的 機能이 이루어져야 한다.

1. 社会変革의 諸理論

이러한 측면을 보다 具体的으로 分析할 때 여기에는 必然的으로 Malinowski의 社会機能論이 提起된다. 즉 한 社会가 発展하고 統合하고 그리고 変容하기 위해서는 그 社会內的인 発展性向 또는 內的 要素가 우선적으로 理解되어야 한다.

Malinowski는 社会構造의 機能的 接近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한 社会의 構造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 社会의 価値観念을① 分析해야만 한다.

둘째로는 그 社会를 構成하고 있는 人格体에 대한 分析이 要請된다.

세번째로 法則과 規範이 分析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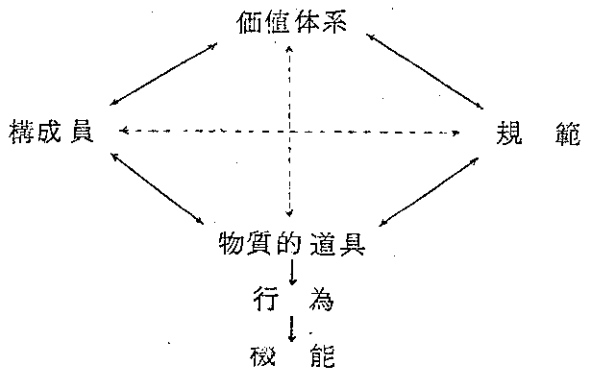
네번째로 社会構造內의 行為過程이 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註 ① Malinowski의 表現으로는 이 말을 Charter라고 記述하고 있다. Malinowski, B, The Dynamics of Culture Change (Yale 1945) P 52.

이들 社会構造의 機能이 分析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実을 図式化하면 <図表2>와 같다.

즉 그의 主張에 따르면 모든 社会構造는 価値観念을 基底로 해서 終局的으로는 特定한 機能에로 유발되는 一聯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図表2>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動因은 바로 必要性 (Needs) 이라는 概念으로 理解되고 있다.

그는 必要性 또는 慾求라는 어휘를 〃個我의 内面的 충동성을 발휘시켜 文化의 内容을 구성하게 하는 것으로서 概念定義하고 있다.②〃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慾求中에서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서 生物体 또는 有機的 慾求로서 個人과 그것과 연관된 모든 事実에서 얻을 수 있는 것 一즉 그의 환경적 文化的 영향一등의 複合性속에서 두번째의 慾求인 制度的인 즉 再創造的이고 統合的인 것으로

註② Ibid, P 62 ~ 5.

서 이를테면 음식, 気温, 住居와 같은 人間生命体 維持慾求이다.

이 外에도 科学, 知識, 宗教와 같은 綜合的 慾求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Malinowski는 文化의 変化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文化変化는 단순히 静態的인 所産도 아니요 一時的인 体制統合의 現象도 아니며 調和的인 単一体도 아니고 그렇다고 機械的 混合物은 더욱 아니다. 다만 変化의 様相은 새로운 文化에의 実体이다.③ "

Malinowski가 지나치게 文化概念을 重視하여 社会構造의 転換을 설명한데 反하여 心理的인 側面에서 이를 考察한 사람이 있다.

그 代表的으로 Taylor, G.R을 들 수 있다. 물론 Freud의 同調化理論에 의한 社会発展論도 없지 않다.④

그러나 Taylor의 理論이 Freud의 理論을 受容発展했다는 側面에서 그의 主張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Taylor는 Freud의 同調化理論을 細分하여 父親指向性的 同調와 母親指向性的 同調로 設明하고 있다. 前者를 그는 Patrism이라 하고 後者를 Matrism이라고 命名하였다. 그는 権威主義나 独裁主義 体制에서는 어린이들의 同調化에서는 Patrism이 強하고 그 반면에 調和的인 競争体制에서는 Matrism이 支配的 属性으로 나타난다. Taylor의 이러한 主張은 二元法的인 理念型이기 때문에 자연히 現実的 個人의 大部分에게는 그 中間的 存在者로 理解할 수 있을 것 같다. Taylor가 研究의 主된 時期로 選択한 것이 18세기와 19세기의 英国社会였고 그중에서도 特徴

註③ Malinowski, P.26.

④ Freud.S. " Three Essays on Sexuality " 1953.

있는 청교도와 浪漫主義者등을 中心으로 하였다.

그는 自己가 二分한 Patrism과 Matrism과의 対等한 性格으로서 Paritan과 Romantics를 들고 있다. 그는 이들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対比하여 社会的 発展과 人格 또는 心理的 要因을 유추하고 있다.

청교도적 Patrism	낭만적 Matrism
1. 人間의 内面的 本性에 対한 사악성을 확신함.	1. 状況이 사악하다고 믿는다.
2. 人間과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을 확신함.	2. 人間에 有益하고 관계있는 하나님을 확신함.
3. 言語와 行動에 厳格한 制限性	3. 우발적이고 非規制的임.
4. 女性의 종속성확인	4. 男女対等性

이처럼 서로가 相異한 性格体가 그 社会에 어떻게 作用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次元에서 考察하고 있다.

(1) 投射的 父母의 영상이 父権的인가 아니면 母権的인가?

(2) 個人의 自我領域이 交互的인가 独断的인가?

(3) 他人과의 対面에서 나타나는 性格이 排他的이고 好戦的인가의 여부.

(4) 自我에 対한 原罪感情의 程度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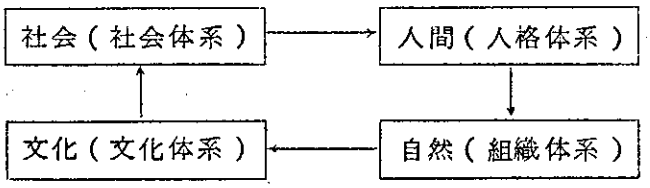
結局 Taylor의 중요한 主張은 個性이야 말로 社会発展의 가장 절대적인 要素로서 그 個性의 支配性向이 社会発展의 基盤的인 要素가 된다는 것이다.

文化槪念的인 것과 心理的인 것과는 달리 行為理論에 立脚한 Parsons의 論文 역시 社会発展理論에 除外될 수 없는 理論이다.

Parsons의 理論은 우선 그의 社会体系에 対한 槪念定義에서 出発해야 한다. "만족의 絶対化를 충족하려는 동기에 의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人間関係로 形成되어 있는 것이 社会体系이다.⑤

Parsons는 社会体系에 대한 理解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범위를 区分하고 있다.

<図表3>



이러한 区分自体는 단지 論理的인 理論展開의 한 방안에 不過하고 実際로는 区分하기 힘든만큼 相互関係의 復合性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各体系는 소위 行為理論에 의하여 각기 발전되고 있다.

즉 各体系는 우선 適応的, 機構的, 目的調整的 下部体系가 明白하고 充足的인 自己目標의 下部体系는 潜在的이고 形態維持, 内容規制와 조절적인 下部体系 그리고 統合的이고 明白한 증거 調整的 下部体系間에 일정한 行為過程이 展開된다. 이러한 行為過程에는 그것을 誘導하게 하는 投入的인 에너지가 作用하고 그것에 의한 体系的인 反応이 나타남으로써 한 社会의 発展形成에는 이미 지적한 適応的下部体系, 志向的下部体系, 統合的下部体系 그리고 潜在的下部体系로 展開된다.

이러한 主張에 의하면 既存社会는 별다른 変革없이 生成되기 보

註⑤ T.Parsons, The Social System, London. 1952. P.5~6

다는 維持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革新的인 社会体系의 変革도 発生하게 된다. 特히 Parsons의 理論에 입각하여 Smelser는 社会変革이 要請可能하게 되는 要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活動機能과 資源의 기존적 利用에 대한 불만

2) 환상, 침탈, 고통등의 明白한 徵表에 의한 混乱의 発生

3) 경찰제도, 종교지도자등과 같은 社会統制機関에 의한 사태처리의 不公正性

4) 새로운 理念体系가 기존社会体系를 비판하고 変革을 조장할때

5)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理念体系의 必要性을 受容할 때에는 이미 그 社会는 変革過程에 突入하고 있다고 説明할 수 있다.⑥

以上에서 살펴 본 社会構造의 変革理論은 文化的인 側面에서만 또는 心理的인 社会体系的 側面에서만 理解할 수 없는 複合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社会変化理論을 特定社会의 文化構造의 分析에 適応性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綜合的인 模型이 設定되어야 한다.

2. 分析的 模型

한 文化体系나 社会構造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接近模型이 設定되어야 한다. 本研究에서도 이러한 模型을 設定 接近하려한다. 文化構造의 分析을 단순히 서술적인 기존상태만을 묘사해서는 素因이나 要素를 찾아낼 수 없다. 이러한 側面에서 文化構

註⑥ Smelser, N.J. " Social Chang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 Lon don. 1959. Chap. 7 ~ 11.

造를 주로 生態学的인 側面에서 接近할 必要가 発生한다. 즉 発生에서 消滅에 이르기까지의 諸過程이 分析의 초점이다.

① 発生 ② 初期発展期 ③ 성숙安定期 ④ 退潮期 ⑤ 消滅의 諸過程이 그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発生 : 特定文化構造가 生成하게 되는 社会状況的 要因은 무것인가? 구체적으로 文化構造의 生成이 自然的인 것일수도 있으나 이와는 달리 意図的 造成일 수도 있다. 一定한 政治的 目的이나 또는 特定社会의 価値体系의 定立을 위한 試図로서 새로운 文化構造가 形成될 수도 있다. 特히 伝統的이고 歷史的인 文化構造가 一時에 中断되고 그것에 대치하는 새로운 文化가 얼마든지 生成될 수 있음은 現代社会의 支配手段의 極度의 操作性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文化生成의 意図는 무엇이며 그것의 基盤的 価値体系는 무엇이고 또한 그것의 形成過程의 特殊性은 무엇인가가 分析의 초점이다.

② 初期発展期 : 일단 生成된 文化構造는 성숙되고 安定된 状態에로 나아가기 위해서나 또는 自然的인 様相으로서 아니면 意図的인 操作에 의하여 初期発展期를 맞게 된다. 初期発展期의 文化構造가 政治나 経済등 다른 社会体系와의 関係와 그 程度를 理解해야 하고 또한 特性도 究明되어야 한다.

③ 성숙安定期 : 文化構造가 지속적인 것이 될 때는 이미 安定期에 突入했음을 뜻한다. 安定期에 들어섰는가의 与否는 그것이 社会構成員 모두에 의해서 内的 갈등이나 混乱없이 받아 들여지고 그 文化構造의 온존을 바랄뿐 아니라 새로운 것의 대두나 또는 変革을 원하지 않을 때이다. 이러한 安定期의 特徵은 政治体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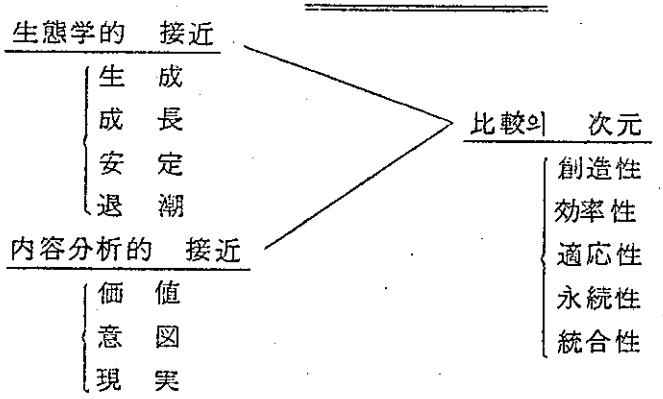
安定과 経済的 分配에서의 正当性이 이룩됨으로 모든 分野에 걸쳐서 効率性과 正統性이 高度로 확보된다는데에 있다.

④ 退潮期 : 그러나 文化構造는 결국 또 다른 文化構造에 의하여 대치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事実을 考察할 때 特定社会의 文化가 退潮期에 直面했는가는 몇가지의 特質的인 状況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이러한 生態論的 分析과 함께 政治社会와 文化体系와의 相関性이나 또는 그 文化体系의 社会的 機制作用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内容分析的 接近이 수반되어야 한다. 特히 이러한 内容分析的 接近은 그 社会의 文化構造를 보다 微視的으로 考察할 수 있는 方法이다. 이러한 内容分析的 接近의 一次的 対象은 자연히 "意思疏通의 伝言"[⑦]에로 集約하게 된다. 즉 그 社会의 文化의 主要한 領域에서 表出된 作品에서 本質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 主要基準은 ① 価値観의 発見 ② 意図性의 추적 ③ 現実의 評価등이다.

<図表 4>

接近方法의 図示



註⑦ Ole R.Holsti,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arians" London 1969. P.3.

以上의 方法을 즉 生態学的 接近과 內容分析的 接近을 綜合하여 比較의 次元을 設定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異質的인 文化構造를 統合시킨다는 前提에서 이들 文化의 本質을 分析評価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도로 文化構造의 比較에의 次元으로서 ① 創造性 ② 效率性 ③ 適応性 ④ 永続性 ⑤ 統合性을 지적할 수 있다.

本論文에서도 이러한 接近方法에 의하여 分析하려 한다.

Ⅲ. 北韓文化構造의 現実性

本章에서는 文化의 領域別 現実을 分析하려 한다. 文化構造의 分析対象領域으로서는 이미 研究한 歷史, 青少年社会化過程, 言語, 文学等의 分野는 除外하고 그 대신 学術研究分野, 民俗과 一般慣習 音楽 및 諸盤芸術등으로 국한하여 考察한다.

1. 学術研究領域

北韓에서의 学術과 研究는 한마디로 共産主義의 政策을 合理化하고 経済建設과 住民生活에 절실히 必要한 문제들에 대한 研究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事実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쉽사리 立証할 수 있다.

〃科学研究事業에서 기본은 우리党과 우리 革命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主体的 입장에 튼튼히 서서 科学技術을 発展시켜 나가는 것⑧〃이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오직 学問의 自由로운 研究活動은 용납되지 않고 一切의 모든 学術은 소위 共産党的 政策을 合理化하는 것에 局限되고 있다. 이러한 性格은 学術機関이 組織的으로 결성되어 党의 絶対的인 支配를 받고 있다. 우선 이들의 組織体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共産党 中央委員会의 科学 및 学校教育部下에 科学院이 構成되어 있다. 1952년에 설치된 科学院은 12個의 研究所를 산하기관에 두고 있다. 1964年에 설치된 社会科学院은 歷史, 哲学, 経済学 등 人文社会科学系通을 包括하고 있다. 이밖에도 農業科学院, 医学科学院등이 設置되어 있고 特殊分野의 研究所로서는 教育科学研究院, 山林科学

註⑧ 1967年12月16日, 金日成의 10大政綱 演設中에서.

研究院，経路研究院등이 있다.

北韓社会의 学術研究는 党的統制와 指導下에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활동은 ① 所謂 国家的 必要에 의해서 国家計劃委員会에서 研究計劃이 승인되고 必要한 研究資料와 費用이 供給되는 国家課題와 ② 特定 行政府処·省의 委嘱을 받아 契約을 맺고 必要한 資料와 費用을 供給받는 契約課題 ③ 그리고 大学 또는 研究所 評議会에서 承認된 課題로 研究者 自身이 資料를 購読하고 研究費의 원조없이 추진하는 自体課題로 区分될 수 있다.⑨ 철저한 組織의 包括性속에서 学問的인 순수성과는 달리 学問外的 目的을 위해서 所謂 年間一篇以上의 研究論文을 完遂해야 하는 義務가 주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学問研究者나 学者的 良心에서 보다도 党宣伝員으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組織에 의한 党의 絶対的인 統制下에 있다는 特徵以外도 다음과 같은 事実이 지적될 수 있는 것 같다. 즉 北韓社会의 学術은 항시 現実的인 適応性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学問本然의 性格과는 거리가 있다. 뿐만아니라 주어진 限界性이 뚜렷이 설정되어 그 限界性을 克服할 수 없는 与件에 놓여 있다. 즉 唯物辯証法과 金日成의 우상화라는 絶対的 命題를 前提하고 그 以下에서만 研究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중요한 性格이다. 最少한 学問的 良心은 이미 이 社会에서는 存在하지 않는다.

이러한 性格을 몇가지 学問別로 区分하여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A) 哲学·思想分野 : 北韓의 学術界에서 哲学·思想分野는 다른 学問分野보다도 더한층 重視하고 있다. 唯物論的 思想体系를 北韓社

註⑨ 北韓総鑑 P.45 ~ 68.
共産圏問題研究所刊. 1968. P.603.

会에 適応시켜야 하고 共産党의 党論을 当為化해야 하는 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哲学思想界는 자연히 所謂 国家的必要性에 더 한층 適応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時代的인 性格을 反映하고 있다. 즉 韓国戦争을 前後한 期間에서는 소위 「朝鮮革命의 性格」에 関한 문제에 집착하여 그들의 共産主義的 当為化에 경주하였다가 그 후 곧 「土台와 上部構造」라는 唯物史観의 経済的決定論에 関한 論議가 展開됨으로써 "生産関係의 総体가 社会의 経済的構造를 즉 現実的인 土台를 構成하고 있으며 이 위에 하나의 法律的인 또는 政治的 上部構造가 構築되며, 그리고 이에 일정한 社会的 意識의 形態가 照応하게 된다⑩"는 그들의 定律化를 論議하였다. 그뒤 北韓의 哲学思想界는 政策的인 見地에서 主体性이나 自主路線의 当為化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事実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3 ~ 1964年間의 論文의 主題別 分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大部分의 論文이 北韓의 唯物史観의 正当化를 위한 思想史的인 側面에 중점이 놓여져 있던가 또는 政策的인 配慮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青山里 方法과 唯物辯証法의 創造的 倶現⑪"등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B) 経済学分野 : 「레닌」의 表現에 의하면 "政治는 経済의 集中的 表現"이라는 主張에서 感知할 수 있는 것 처럼 北韓社会에서의 経済学은 中核的 位置를 占有하고 있다. 経済学도 다른 学問領域과 마찬가지로 「맑스·레닌」主義의 現実的 理解에 중점을 두고 있다. 韓国戦争을 前後한 期間, 北韓의 経済学界는 土地改革등 그들의 経済政策의 合理化에 역점을 두었고 그후 점차 南北統一을

註⑩ "마르크스" 経済学批判序文에서

⑪ 1964年에 発表된 北傀 金楊善의 論文題目

대비한 方向으로 研究分野가 강조되고 있다.

特히 最近에는 利子 및 利潤方式에 의한 経済管理体制가 考慮되고 있다.

(C) 自然科学分野 : 北韓에서 自然科学에서는 그들의 表現대로 出身性分이나 党性이 弱한 南韓出身人士나 以前의 地主階級出身者도 多少間 활약하고 있다. 自然科学分野에서 순수이론분야에 속하는 数学이나 物理学등도 応用部分이 強調되고 있다. 北韓의 自然科学은 党的統制가 제일 강하게 미치고 있는 生物学에서부터 제일 発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退歩한 医学界에 이르기까지 社会科学的 영향력하에 놓여 있다. 즉 北韓에서는 社会主義的 生産性을 提高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自然科学이 動員되고 있다. 生物学界는 그들의 社会主義論理에 입각하여 限界性속에서 統制的 強点이 주어지고 있다. 最近에는 地理·地質学界를 軍備拡張과 外貨獲得등 軍事·経済的인 目的에로 動員하고 있고 重工業中心主義의 北韓経済構造의 現実的 여파로 인해서 工学도 점차 加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2. 言論과 放送의 実態

社会主義体制가 全体主義를 指向하기 때문에 言論과 Mass Com에 対한 絶対的인 統制가 加해 지고 있다. 물론 北傀의 憲法 13条에 의하면 마치 言論의 自由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規定하고 있다. "公民은 言論·出版·結社·集会·群衆大会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 公民은 民主主義 政党·職業同盟·協同団体·体育·文化·技術·科学 其他 団体를 組織할 수 있으며 이에 参加할 수 있다." 라고 規定하였으나 이는 単純히 現実美化의 장식적인 규정에 不過하다. 新聞·放送에 대한 現実的인 統制는 共産党의 宣伝

선동원의 機能에의 指向에로 帰一시키고 있다.

(A) 新聞：金日成이 1945年에 創刊한 「正路」라는 機関紙를 오늘날 労動党의 機関紙인 「로동신문」에로 発展시켰다. 그후 日刊紙로서는 機関紙로서의 全4個가 全国的인 読者를 対象으로 반포되고 있다. 즉 「민주조선」(最高人民会議常委·内閣機関紙),「평양신문」(평양特別市 人民委員会),「로동청년」(社労青 中央委)등이 그것이다. 그외 各職業別機関紙, 各道別機関紙, 団体別機関紙가 있다.

한편 이들 新聞의 報道記事의 内容은 거의 公式的인 機関의 代弁이나 宣伝에 집중하고 있다. 特히 이러한 事実은 共産党의 政策의 能率的인 수행을 위해서 大衆의 積極性과 創造性을 発動시키기 위해서 全力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 記事의 内容은 다음의 몇가지로 集約할 수 있다. "① 金日成 偶像化政策의 一環으로서 革命伝統의 계승에 관한 것. ② 党政策의 宣伝과 그 実践의 強要 ③ 経済建設 즉 「千里馬運動」,「青山里方法」,「大安事業体系」등의 強要 ④ 対南政策으로서의 韓国의 悪宣伝과 祖国統一에 관한 宣動, ⑤ 反美運動의 宣動과 悪宣伝, ⑥ 国際外交뉴우스等이다."⑫

(B) 放送：북괴는 内務직속으로 中央放送 委員会를 두고 그밑에 第一放送局인, 그들 住民에의 宣伝用과 第二放送인, 対外放送이 있다. 第一放送 산하에는 清津, 元山 등 7個 放送局이 있고, 郡単位에서는 거의 강제적으로 有線放送이 가설되고 있다. 放送内容은 그들 住民에게 共産主義에의 教化와 党에의 忠誠을 要求하는 御用道具로서 利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金日成의 偶像化, 共産主義의 宣伝, 韓国社会에 대한 悪宣伝과 그들의 生産性提高를 위한 所謂 造作的인 労動者의 美談

註⑫ 北韓総鑑 P. 612.

등을 放送한다. 対外放送은 주로 対南放送인데 反美宣伝이 大部分이다. 日本語, 英語, 中国語, 仏語, 西班牙語, 露語 등 6個国語를 定期的으로 放送하고 있다. 그러나 主된 対象은 韓国과 日本을 主対象으로 하고 21時間 放送에 15時間을 対南心理戦을 放送하고 있다. 그중 「맑스·레린主義 放送大学」이라는 架空的 放送을 韓国民에게 되풀이하고 있다.

(C) 雜誌 : 北傀에서 刊行되는 雜誌는 新聞이나 放送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重要한 宣伝機関의 하나이다. 自由로운 出版은 전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所謂 日刊紙만으로도 30餘種으로 모두 그들의 党의 宣伝道具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青少年과 職業別 労動者를 主対象者로 刊行되고 있다.

이처럼 北韓社会에서는 与論의 集成体나 또는 伝達者로서의 役割과는 전연 다른 共産党의 下向的인 宣伝手段이다. 이 社会에서는 与論이 存立할 수 없고 또 与論이라는 概念設定도 必要하지 않다. 最小限 北韓에서 Mass Com.이 이처럼 住民의 精神的 自由조차 박탈하고 個体로서의 尊厳性이나 価値性을 消滅하고 全体로의 한 部分品化에의 集合機能을 行使하고 있다.

3. 教育의 現実性

北韓에서의 教育制度는 主로 3가지로 区分할 수 있다. 첫째로는 学校教育制度, 둘째로 成人再教育制度와 세째로 特殊教育制度가 그것이다.

(A) 学校教育制度 : 北傀는 学校教育의 基本方向을 그들의 四全大会에서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 "(1) 多方面的으로 発展된 새로운 型의 人間을 育成하고 共産主義的 人間을 形成하며, (2) 理論과 実

践이 결부된 教育을 進行하며 教育과 生産의 연결을 강화한다. (3) 技術教育을 더욱 強化하며 (4) 革命伝統教養을 더욱 強化하고 젊은 世代들을 共産党이 생각하는데로 생각하며, 말하며, 行動하며, 하나는 全体를 위하여 犠牲할 줄 아는 集団主義 精神에 透徹한 人間으로 教養한다. (5) 文化革命의 基本으로 되는 일반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成人의 再教育을 強化하고, (6) 教育部門의 千里馬運動을 強力히 추진하며 社会義務労動制를 강력히 추진시키며 (7) 学校에 대한 共産党의 지도를 더욱 強化함으로써 教職員 및 学生들의 党性을 높일 것등이 規定됨으로써 이들의 教育目標의 実践을 알 수 있다.〃⑬

北韓의 学校制度는 多小間의 時代的인 変動을 보여주었다. 5, 3, 3, 4制의 教育制度가 採択되었으나 戦争期間에는 人民学校 5年制가 4年制로 短縮되기도 했다. 오늘날의 教育制度는 1967年4月1日에서부터 実施된 所謂 9年制 義務教育制度와 従前의 技術学校를 없애고 中学校의 教育年限을 5年間으로 延長하는 동시에 2年制 高等学校를 신설하였고, 高等技術学校를 3～4年制로 연장하여 中等実業教育을 完成하게 하였다.

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날 北韓社会에서 急造된 高等教育機関이나 '68年 現在 北韓에서는 98個의 大学이 設置되어 있다. 그중 綜合大学은 金日成大学뿐이고 나머지 모두가 単科大学으로 人文系와 技術系의 比率은 3：7이다. 技術系大学은 専攻科目別로 細分化되어 工場과 결부되어 있다. 高等教育機関의 量的인 증대현상은 언제나 韓国의 大学과의 比較値에서 오는 急造의 現

註⑬ 前掲書 P. 577.

象이다. 물론 大学에의 進学은 機会가 均等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党性과 性分이 우선적으로 考慮되고 있다. 入試成績表 1/3, 出身成分 1/3, 社会団体生活評価点 1/3 에 의하여 入学生이 決定된다. 所謂 5%以内의 모집정원이 共産党 간부의 子弟로서 충당되기도 한다. 이들 大学生에게 実施하고 있는 教授内容은 흔히 知能教育·思想教育·体力養成에 중점이 두어졌다. 知能教育은 工場이나 実習場에서의 経験과 教室에서의 学習結果를 결부하여 大学生들도 중요한 労動集団으로 利用되고 있다. 이들의 学習時間은 週当 40時間程度로 35週間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이 学習하는 総時間은 5,600餘時間中에는 軍事学이 1,200時間이 包含되어 있다.

(B) 成人教育制度: 北傀는 所謂 그들의 体制正当化를 위한 思想教育의 철저한 効果를 위해서 中学校 정도의 成人教育을 強要하고 있다. 全体主義 社会에서 이러한 労力은 思想의 体系的 団合化에도 그 目的이 있지만 또한 効果的 大衆宣動의 方法으로도 利用될 수 있기 때문이다. 北傀에서의 現在 大衆教育機関 또는 成人再教育機関으로는 所謂 勤労者学校와 勤労者中学 그리고 郡党学校, 共産大学, 工場大学, 人民経済大学등을 들수 있다. 1962年 当時의 統計에 의하면 勤労者学校는 8,000餘校, 勤労者中学校는 4,000餘校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学校에서 教授되는 内容은 文盲退治와 思想教養의 強化이다. 郡党学校는 우수한 作業班長, 指導員 工場長 등의 再教育機関으로서 工場·企業所·協同農場의 初級幹部 양성에 그 目的이 있다.

共産大学은 現在 全部 11個所로 중견 共産党幹部의 養成機関으로 所謂 核心党員의 教育을 実施하고 있다.

工場大学은 大規模工場労動者를 포용하고 있는 工場에 부설된 機関으로 그들의 表現을 빌리면 理論과 実践의 겸비를 위한 生産教育의 実施에 있다. 工場大学은 北韓全域에 37個所이다.

人民経済大学은 過去 内閣幹部学校를 개편한 것으로 共産党 高級幹部의 政訓教育機関이다. 4年制로 北傀의 経済発展에 기여할 高級幹部養成을 主目的으로 하고 있다. 年平均 1,500餘名이 入学하여 組織的인 合宿生活을 通한 共産主義的 敎養을 体得한다.

(C) 特殊教育制度 : 여기서 지적하는 特殊教育機関은 共産党幹部(高級), 特히 対南要員의 教育機関을 뜻한다. 現在 北傀는 그들의 야욕대로 南韓의 赤化를 달성한 후 行政要員의 必要에 充当하기 위한 기간요원의 訓練機関과 最高級 党幹部의 訓練機関으로 大分할 수 있다. 前者에 속하는 教育機関으로서는 松島政治経済大学을 들 수 있고, 後者로서는 中央党学校를 지칭할 수 있다. 松島政治経済大学은 1953年에 中央党 直属으로 설치되어 20歳以上 40歳까지의 南韓出身者를 選定하여 政治思想과 共産党의 忠誠度를 함양시키고 있다. 主로 南労系의 残留者 人士로서 그들의 宗派性을 除去하고 金日成에 대한 徹底한 偶像化를 樹立하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心理的인 満足感을 주기 위해서 잠정적인 해당지위를 부여해 주고 그들의 忠誠을 확보하고 있다. 現在까지 2,000餘名의 卒業生이 排出되었다. 中央党学校는 中央党直属으로 共産主義教育의 最高機関이다. 教育年限은 3年으로 郡·道党 副委員長級人士가 教育받는다. 또한 이 学校内에 「맑스·레닌主義学校」가 따로 있다.

여기는 道党幹部와 最高党幹部 즉 課長級의 教育機関이다. 以上의 諸教育機関以外에도 通信教育網을 통한 社会教育이 実施되고 있다. 결국 오늘날 北韓社会는 어느 의미에서는 学校組織의 体系에

흡수된 거대한 学習機関이다. 이 学校야말로 모든 住民에게 思想敎化의 統制와 徹底한 生産力의 증대를 위한 訓練을 強化시키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北韓의 敎育制度는 몇가지 부수적 効果도 함께 얻고 있다. 즉 住民의 思想敎化나 生産力 증대와 함께 組織化하고 体系化함으로써 보다 더 全体主義的 統治를 効率化 시켜 주고 있다.

4. 体育과 文化施設의 現実

北韓은 体育을 生産性과 国防力에 의한 必要性에서 党的인 指導課題의 하나가 되고 있다. 北傀는 内閣直属下에 体育指導委員会를 設置하고 (1) 全国的인 体育行使 및 国際경기, 人民体力検定등에 관한 諸般 기획, 관리, 운영, (2) 各種 体育경기용資材의 供給 (3) 국제수준의 우수선수양성, (4) 体育活動에 必要한 예산의 策定과 산하단체의 監督등의 기능을 行使하고 있다. 北傀가 体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党的 事業으로 発展시키고 있음은 全体主義 制度下에서의 状況의 発露이다. 모든 사람에게 全体의 절대적인 위력을 과시하고 個個人의 独立性의 無力感을 실증케 하고 団体活動에서 얻는 狂的 분위기의 高潮化는 그만큼 政策的인 効果를 얻을 수 있다. 北傀가 이러한 効果를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1948年以後 人民体力検定制度에 関한 命令을 発表하고 体力検定을 実施하였다. 北韓의 体育実態는 첫째로 体力検定制度, 둘째 体育의 大衆化, 세째로 政治的인 威系性을 体育 선수에 부여한 점 等이 特異性으로 지적될 것 같다.

(A) 体力検定制度 : 北傀는 労動力의 정확한 動員과 우수선수의 확보를 目的으로 毎年 5月1日부터 10月31日 사이에 결쳐 基本検

定과 特殊検定으로 区分하여 実施하였다. 基本検定은 달리기, 持久力, 높이뛰기, 던지기, 運搬, 懸垂力, 体操 등이며, 特殊検定은 体育技術을 要하는 種目으로 水泳行事, 滑空 등 種目에서 選択受検토록 하였다. 体力検定制度의 細部規定은 (1) 受検対象者의 표준등급을 成人一級, 成人二級, 少年級의 三等級으로 区分하였고 (2) 検定種目은 成人은 17個 種目, 少年級은 12個 種目이 과해지고 있다. (3) 受検対象者의 性別, 年令別区分은 男子(16才～18才, 19才～30才, 31才～40才, 41才以上)와 女子(16才～18才, 19才～25才 26才以上)로 되어 있으며 (4) 受検節次는 学校, 企業所, 農業協同組合 単位로 体力検定小委員会를 組織하고 이에 必要한 준비사업을 진행하며 検査結果에 따라 이에 적합한 等級을 부여한다. 이 検定을 통하여 受検者에게 資格等級이 決定된다. 즉 無資格選手, 3級選手, 2級選手, 1級選手, 스포츠名手, 功勳体育人등 6個等級이 그것이다. 물론 北傀가 이 制度를 통하여 무수 選手를 発見하고 있다.

(B) 体育의 大衆化 : 北傀가 体育의 大衆化를 위해서 대규모의 体育大会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集団的인 体育活動 즉 매쓰게임이나 集団体操 등이 장려되고 있다.

1960年以来 実施되고 있는 全国体育大会는 毎3年마다 1회씩 北韓의 各地域代表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며 그 外에도 種目別選手権大会가 개최된다. 北韓에서의 体育을 통한 全体主義的인 思想教化는 数萬名을 動員한 集団体操에서 오는 狂的인 感情의 高潮化나 소위 革命戦蹟地에로의 体育旅行 등은 이러한 目的에서 추구되고 있다.

(C) 群衆文化 : 北傀의 群衆文化는 各種芸術活動을 통한 音楽, 무용

演劇，美術，文学活動과 各種 体育活動，読書，映画鑑賞，直観宣伝등이 있다。 北傀의 이러한 文化活動의 目的은 역시 金日成偶像化를 위한 革命伝統教育과 生産性의 提高를 위한 것이다。 現在 北韓의 各道마다 소위 群衆文化会館이 建立 運営되고 있고，工場，企業所에는 그나름의 倶楽部가 있고 協同農場에도 있으며 農村에는 民主宣伝室이 설치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北傀는 大衆에게 호소력이 강한 直観宣伝을 위해서 図書館과 博物館 및 紀念館이 설치되어 있다。 中央図書館을 위시해서 全地域에 12 個의 道立図書館 178 個의 市郡図書館이 설치되어 있다。 北傀는 또한 16 個의 博物館과 8 個의 分館，3 個의 記念館이 설치되어 그들의 思想教化作業에 利用하고 있다。

以上에서 北傀에서의 文化構造의 特殊性을 理解하는데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가지 文化領域의 実態를 考察하였다。그 外에 다른 部分도 必要에 따라 다소 言及될 것이다。

Ⅳ. 北韓文化構造의 特殊性

北韓社会의 文化構造의 本質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명한 実態를 考慮하여 다음 몇가지 次元에서 그 特殊性이 究明되어야 할 것 같다. 즉 그것은 北韓에서의 現実的인 文化構造를 造成시킨 状況的 要因과 意図的 誠図와의 相関性을 考慮한 生態学的인 考察과 内容分析的 接近이 그것이다.

1. 生態学的 分析

北韓의 文化構造도 厳格한 意味에서 文化的인 生態性에서 벗어날 수 없다. 끊임없는 変化와 되풀이 되는 自己変革을 通하여 文化形成期, 成長期, 安定期, 退潮期에로 移行하고 있다. 즉 이러한 変化는 이미 그것이 하나의 自動調節된 動態的 変革이기 때문에 이러한 法則의 支配下에 놓이게 마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北韓에서 文化構造의 生態学的 段階로 説明하면 다음과 같다.

(A) 文化形成期 : 北韓에서 오늘날과 같은 全体主義的이고 唯物史観에 立脚한 共産主義的 文化構造의 설정은 1945年에의 解放과 1950年의 韓国戦争까지로 区分할 수 있다. 이 期間동안 北韓에서는 歴史上 최초로 唯物史観에 입각한 共産主義的 文化構造의 移植을 経験하게 되었다. 当時 이러한 文化構造의 形成을 담당한 階層은 주로 (1) 소련의 비호를 받는 共産主義者中에서 金日成 일파, (2) 中国에서 帰国한 中共系人物 (3) 国内에서 共産活動을 하던 階層, (4) 比較的 共産主義에 새로운 기대와 가치를 부여했던 下層階級의 人物이었던 것이다. 이들에 의하여 창도된 文化観念은 伝統的인 文化와는 너무나 먼 異質的인 것이었기에 여기에서 発生하는

갈등도 적지 않았다. 즉 宗教에서 오는 갈등, 특히 기독교와 天主教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事実이 되었으며 比較的 生活이 安定된 中産階級의 保守伝統的인 観念에서 오는 마찰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慣習과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갈등이었다.

당시 이러한 갈등을 克服함에 있어서 北傀가 動員한 方法은 一種의 戦略的인 것이었다. 즉 聯合勢力의 形成으로 支持基盤을 拡大하고 나아가서는 反対勢力을 점차 고립화시키는 方法과 時期的으로 점진성을 考慮함으로써 반발의 強度를 弱化시켰다. 구체적으로 北傀는 그들의 支持基盤을 多大数의 勢力을 形成하고 있는 中以下의 階級의 代弁者로 자칭함으로써 마치 그들의 同類的 利益 추구자로 인식시킴으로써 순진한 中以下의 階級의 支持獲得에 광분하였다. 北傀가 우선적으로 考慮한 政策의 하나가 土地改革이었고 이것은 当時 그들에게는 마치 耕者有田의 原則에 입각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반발을 最小限으로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北傀는 初期에 一般国民의 生活風習에 지나친 간섭을 가하지 않고 伝統文化나 慣習, 그것이 설혹 그들의 政策과 多少間 背異関係에 있는 것이어도 그대로 묵인하였다. 그 結果 宗教의 自由도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기독교나 天主教, 天道教가 그대로 명목을 維持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訓練된 共産党員을 重要한 核心的 要人으로 設定하여 이들을 통한 새로운 価値観과 文化構造의 設定을 시도하였고 또 파급하였다. 그 결과 1950년頃에는 이미 北韓에서는 以前의 伝統文化와는 다른 새로운 文化構造가 形成될 수 있었다.

北韓文化構造의 初期形成期의 特殊性은 所謂 새로운 価値観念으로서 唯物史観이 마치 人類史의 절대적인 発展경향이나 真理처럼 国

民에게 확신시켰다는 점과 이러한 확신과정에는 大部分 社会의 文化形成期에서와 같은 自然発生的인 또는 長期的인 生成이 아니라 意図的인 作為의 結果이고 또한 短期的인 生成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短期的이고 意図的인 生成이기 때문에 이러한 過程에는 위로부터 강요된 誠図가 팽배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外面的으로는 妥協과 共存을 許用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一定한 時期가 오면 一切의 妥協이나 共存이 인정되지 않는 徹底한 択一的인 方法을 강요하였다. 特히 이 期間의 特殊性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이미 文化構造의 図式이나 目標나 設計가 이룩된 青사진을 소련에서 借入하였고 (2) 이러한 文化構造의 移植에는 마치 이것의 受容이 歷史的 과정인양 宣伝, 宣動하여 中間的 中立者들까지도 포섭하였고 적대자까지 共存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段階까지는 위장하였으며, (3) 共産党員을 중요한 要所에 배치하여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意図한 文化構造의 効果를 最大로 宣伝, 과시하였으며, (4) 政策的으로 이러한 共産党的 文化構造에서 離脱하는 것은 곧 生存権의 剝奪을 뜻하는 것으로 위협적인 것으로 과시함으로써 強要된 効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生成期에서는 아직도 그 나름의 絶対的인 価値体制로 北韓의 住民에게 受容된 것은 아니었다. 当時 大部分의 国民들은 以前의 伝統과 慣習에 집착하였고 그러면서도 共産主義的 文化構造에 대하여 強力한 부정적인 反応을 보이기에는 이미 分散된 無力한 存在에 不過하였다. 즉 内面的으로 두개의 文化構造에서 오는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状況에서는 大部分의 경우 外的 状況의 強力한 충격에 복속될 수 밖에 없음은 自明한 事実이다.

(B) 文化構造의 成長期：北韓에서 文化構造가 급격한 成長을 보여준 것은 1950年~53年의 韓国戰爭과 그후 戰後 복구시대인 1960年까지로 볼 수 있다. 어느 社会에서든지 戰爭은 그 속에 처한 사람에게는 自然的으로 支持의 성향을 강화시키고 対決的 滅情狀態를 高潮시켜 준다. 韓国戰爭은 北韓住民에게는 두가지의 択一的인 課題를 強要받았다. 그중 하나는 北韓에서의 共産党的 支配体制를 認定하고 그 속에서 生活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脫皮하여 그들의 支配에서 벗어날 것인가의 選択이 그것이다. 大部分의 경우 北韓住民들은 이러한 過程을 경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戰爭은 모든 政策이나 방침이 戰時的인 것으로 武断的인 統治下에 머물게 됨으로 強力하게 文化構造를 成長시킬 수가 있었다. 이 段階에서는 北韓에서 共産主義에 적극적으로 反対했던 人士들은 그 社会에서 脫皮하여 越南함으로써 北韓에서는 그만큼 그들 政策의 반발자 数가 減少되었다. 이러한 事実은 역설적으로 北韓의 文化構造에서나 社会的인 共産党의 支配体制의 공고성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미 이 段階에서는 共産主義支配下의 北韓에서는 宗教의 自由는 完全히 消滅되었고 宗教人은 反社会的 人物로 지탄받았으며 地主나 以前의 核心的 系層은 점차 社会의 周辺的인 지대로 転移하였다. 特히 戰後 그들의 強力한 戰後復旧事業에의 추진은 이 社会에서 反対的인 人士의 存立의 여지를 完全히 剝奪하였으며 共産党 支配階級의 操作的인 民族의 分烈은 극단적인 戰爭에의 競爭과 対決을 深化시켜 주었다. 이미 強力한 政策의 추진은 文化構造의 成長을 加速化시켰다. 이러한 事実은 北韓의 文化構造가 점차 全体主義体制에의 一般性을 보여준 점에서도 充分히 짐작할 수 있다.

(c) 文化構造의 安定期：北韓文化構造의 安定期는 1960年代 初期부터 이루어졌다. 이 期間동안 北傀는 몇가지 政策的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所謂 金日成의 個人崇拜에 대한 偶像化 政策과 自主路線 또는 主体思想이라고 불리우는 中·蘇 勢力関係의 利用등이 그것이다.

北傀가 金日成 個人에 대한 徹底한 偶像化 政策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金日成에 対한 敵対勢力이 完全히 除去되었음을 뜻한다. 所謂 1950年代의 南労党系의 숙청과 그후 延安派나 또는 소련派에 対한 일련의 숙청은 金日成의 独自的이고도 絶対的인 위치를 확고히 했다. 둘째로는 徹底한 集団主義의 体制化가 어느정도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所謂 協同農場이라는 生活의 集団化가 強要되었고 個人的인 모든 思考나 行動이 全的으로 排除되었으며 하나의 커다란 組織体를 이루었다.

北傀는 対内的인 統合을 확보하는 方法으로서 徹底한 감시와 統制는 물론이지만 思想的 当為性을 더욱 徹底하게 教育시켰고 集団主義의 帰属感을 강하게 刺戟하였다. 이러한 政策過程에서 金日成을 단순히 政治指導者만이 아니라 一種의 理想的인 人物로서 회화적으로 美化함으로써 宗教의 교극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를 通한 住民의 공감적 求心力으로서의 効果까지도 計算하고 있다. 오늘날 北韓社会에서 全体主義的 共産主義 文化構造는 일단은 그들 社会에 構造的 基盤을 이룩하고 있다. 思想体系에서부터 価値観念, 判断基準, 活動内容등이 共産主義者들이 意図하고 있는 目的을 어느정도로 充足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充足이 단순히 表面的인가, 아니면 内面的으로도 深化된 것인가는 그만두고라도 韓半島의 北쪽에서는 韓国의 伝統的인 文化構造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異質的인 文化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은 分明한 事実이다.

以上에서 北韓文化構造의 生態学的 展開過程을 考察하였다. 비록 初期形成期에서부터 오늘날의 安定期에 이르기까지 北韓의 文化構造의 展開가 그 社会 支配階級의 一方的인 조작의 結果라고 할지라도 特定한 性格의 몇가지 要因만은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먼저 北韓의 文化가 가지고 있는 生態学的 要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解答으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北韓文化構造는 比較的 政治目的을 기반으로 하는 政治的 배려의 結果이다. 이러한 事実은 文化의 展開를 自然発生的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社会의 意図的 創造物로 이룩해야 한다는 全体主義的 性格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北韓의 文化構造의 生態学的 展開過程에서의 特徵은 文化構造의 核心人物의 徹底한 유도적 活動과 그 効果의 과상적 확보가 徹底하다는 点이다. 세째로 北韓文化構造는 언제나 対抗的 競争 의식속에서 徹底한 対決感을 高潮함으로써 体制帰属性의 当為性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性格은 北韓의 文化構造가 自然発生的인 自由主義 文化構造와는 너무나 대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2. 内容分析的 接近

20餘年間에 걸친 意図的 創造의 対象인 北韓의 文化構造의 内容은 무엇인가? 과연 北韓文化構造가 表面的인 体系性이나 일사불란한 効率性 등이 内面的으로도 深化되어 있는 것일까?

이러한 問題에 대한 接近은 곧 内容分析的 接近으로서 理解될 수 있다.

內容分析의 次元은 첫째로 北韓文化構造의 実質的인 価値性은 무엇이며 그러한 価値性의 확보에의 相対的인 치환이 可能한가의 問題가 分析의 초점이다. 둘째로 北韓文化構造의 意図性은 무엇이며 궁극적인 指向性은 어떤것인가? 세째로는 이러한 価値性과 意図性이 과연 現実的으로 저아래 심층에 이르기까지 深化되어 있는가의 問題가 分析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A) 北韓文化의 価値性: 北韓文化의 絶対的 価値性은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로 文化의 政治에의 従属과 政治的 効果創造의 手段으로서 利用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文化는 政治의 部分的인 또는 表面的인 발현이고 政治的 効果의 創造를 보장할 수 없는 文化는 存在하지 않는다. 둘째로 文化는 支配者階級의 特権을 絶対的인 当為로서 受容하게 하는 国民教育의 한 方法이며 支配勢力의 永続性을 보장하는 手段이다. 세째로는 北韓文化는 항시 伝統文化의 정당한 계승자로 자임함으로써 対決的 使命感을 強調하고 있다. 즉 北韓에서의 文化構造의 価値性은 政治的 効果의 達成을 위한 国民教育의 場이라는 点이다.

北傀가 유달리 思想教育을 強要하고 一方的이고도 하강적인 文化의 受容만을 試図하는가는 文化를 政治의 効果的 보장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実은 이미 社会主義的 唯物史観에서 文化를 上部構造의 하나로 理解하고 経済를 下部構造로 設定할 때부터 決定된 事実이다. 文化의 文化다움은 全体主義的 共産社会의 維持의 手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価値的 부여는 文化의 客観性이나 自発性을 完全히 排除할 수 밖에 없는 状況에 처하게 하였다.

(B) 北韓文化의 意図性: 北韓文化가 意図的인 造作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러한 文化의 造成이 北傀의 支配者인 共産党에게는 特別한

意図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北韓文化가 徹底한 共産主義的 体制化를 試図한 것은 다음과 같은 意図性이 게재해 있다. 첫째는 北韓文化의 徹底한 確立은 우선 対内的인 体制統合의 強化로 共産党의 支配를 永続化하고 그들의 支配 効率性을 높이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北韓의 文化的 統合은 궁극적으로 韓国社会에 대한 그들의 政治的 意図의 達成을 이룩하려는 意図가 内在하고 있다. 그들의 社会主義 文化構造가 단순히 北韓에서만의 局限된 것이 아니라는 問題는 이미 지적한 文化의 政治的 手段이라는 점에서도 充分히 理解될 수 있다.

北韓文化는 社会主義社会의 建設이라는 口号下에 때로는 民族主体性을 가장하고 또한 伝統文化의 계승인 것을 자부하기도 하지만 이미 이곳에서는 自由主義社会의 文化概念으로서는 理解될 수 없는 文化아닌 文化가 이룩되고 있다.

(C) 北韓文化의 現実性 : 과연 北韓文化의 現実은 그들의 慾求 즉 共産党 支配者의 意図나 価値基準의 達成에 充当되고 있는가는 北韓文化의 未来指向的 性格과 연관된 問題이다.

즉 모든 住民은 아무런 반발없이 意図的으로 形成展開되고 있는 文化価値나 制度를 収容하고 있는가? 이 問題에 対한 정확한 解答은 다음 몇가지 次元에서 経験的 接近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北韓社会에서 自殺者의 発生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⑭ 한 社会에서의 自殺者는 곧 그 社会文化構造에 対한 반발자나 또는 非適応者라 말할 수 있다. 北韓에서의 自殺者의 80%가 愛情問題에 연유한 것이라는 事実은 愛情을 마치 自由主義社会의

註⑭ 国土統一院편, 北韓総鑑, 社会篇 P. 57

타락된 폐습으로 宣伝하고 있으며 가혹하게 취급하는 그곳에서 発生하고 있음은 그만큼 文化構造의 유약성을 보여준다. 둘째로 北韓社会에서 계속 少年犯罪者의 数가 증가되고 있음은 그들의 意図的 文化構造에 弱点이 있음을 説明해 주고 있다. 즉 가장 민감하게 共産主義의 体制的 긍정도를 보여주는 青少年間에 이처럼 体制모순이 이들 青少年에게 나타나고 있음은 곧 그만큼 問題의 性格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세째로 所謂 私有財産制度가 完全히 廃止되고 共同의 経済利益과 共同生活을 指向하고 있는 北韓에서도 経済犯이 계속되고 있음은 그들 文化構造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즉 以上의 몇가지 事実에서 北韓의 文化構造가 支配階級이나 被支配階級間에 모두가 다 完全히 一体的으로 受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北韓社会가 構造的으로 中央党幹部나 行政府의 指導級人物로 構成된 特権層, 共産党 및 中央行政府의 官吏로 構成된 中間層 労動者 農民으로 構成되어 있는 底民層 마지막으로 以前의 地主 知識人 宗教人 월남가족등으로 構成된 疏外層으로 大分할 수 있다.

北韓文化의 受容度는 이들 各階層的인 構造에 따라 각기 다르다.

特権層의 受容度는 絶対的이었다면 疏外層의 反抗度는 対照的이다.

그러나 反抗層의 저항은 表面的일 수가 없다. 実際로 自殺者가 中間層以上者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性格의 一段을 살펴볼 수 있다.

즉 北韓文化構造의 現実的 受容度는 強力한 共産党의 統制에 의해서 維持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V. 単一文化統合의 政治的 配慮

以上에서 北傀의 文化構造의 実態를 考察하였다. 南北韓의 単一文化圏形成 즉 韓国的 主体性에로의 北韓文化의 受容을 위한 政策的 배려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次元에서 南北文化의 比較가 이루어져야 한다.

1. 南北文化構造의 次元的 比較

南北韓 文化構造를 比較하기 為해서 ① 文化의 創造性 ② 効率性 ③ 適応性 ④ 永続性 ⑤ 統合性을 中心으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A) 創造性 : 北韓文化構造에의 革新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創造性은 오직 政治担当者의 政策的 配慮以外에는 考慮될 수 없다. 즉 創造性은 극히 制限되어 있으며 一般国民에게 依한 創造性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韓国에서는 이와는 달리 文化가 항시 創造性에 의하여 지속됨으로써 創造性은 韓国文化의 特質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創造性이 文化発展의 競争的 혼돈을 유발하는 非効率性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즉 韓国文化의 創造性에는 단순히 自然発生的인 競争에 일임하지 말고 어느 정도 体系性이 부여된다면 文化構造의 永続性이나 効率性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음은 分明하다.

(B) 効率性 : 文化構造의 効率性이란 文化가 어떻게 社会의 安定과 統合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北韓에서의 文化構造의 効率性은 文化가 곧 政治의 한 手段이기 때문에 絶対的인 効率性의 확보를 기도하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潜在的인 반발도 없지않지

만, 非自発的인것이 긴 하지만 効率性이 強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韓国의 文化構造는 効率性의 면에서 文化가 政治와 特別한 관계에 있지않기 때문에 그만큼 약하다.

(C) 適応性 : 硬直한 全体主義社会가 새로운 社会体制나 潮流에의 適応度가 약한 것은 明白하다. 왜냐하면 文化構造나 社会体制가 構造的으로 完全히 공고화되어 있고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適応性이 弱하다. 이러한 事実은 北韓文化構造에서도 例外는 아니다.

단 어느정도 適応性을 보이는 것은 政策的인 考慮의 결과이지 自発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韓国의 文化는 適応性이 例外的으로 강한 것은 유연성과 競争的 自発性에 기인한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

(D) 永続性 : 永続性이란 文化構造가 어느정도로 지속되는가의 問題이다. 北韓文化構造가 永続性이 강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社会体制의 表現이기 때문에 体制의 変質은 불가피하게 文化構造의 永続性이 断絶하게 되나 韓国社会는 文化構造가 自発的이기 때문에 그만큼 永続的이다.

(E) 統合性 : 文化構造의 統合性이란 文化가 社会의 統合的 機能을 담당하고 있는가의 性格이다. 즉 그 社会의 모든 構成員에게 文化構造가 社会構成員의 구속성을 확보하는가의 問題이다. 北韓社会構造는 궁극적으로 社会構成員의 구속적 機能을 極大化하기 위한 조작적 결과이기 때문에 統合性은 強하나 韓国社会에서의 文化的 統合性은 競争性과 극도의 自発性때문에 統合性이 弱하다.

以上의 事実로 図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強点은 +, 弱点은 -로 表示함.)

＜図表5＞

	韓　国	北　傀
創造性	＋	－
効率性	－	＋
適応性	＋	－
永続性	＋	－
統合性	－	＋

2．統合의　政策的　考慮

南北韓単一文化圏을　形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政策的　次元에서　長期的인　面과　短期的인　面에서　考慮될　수　있다.

(A) 短期的　政策：南北韓　文化構造의　統合을　위해서　時急히　이룩되어야　할　政策的인　配慮로서는　다음　몇가지　方法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로　韓国의　文化的　혼돈을　発展的　정리에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韓国文化의　伝統的이고　民族的인　部分의　계승과　発展을　위한　政策的　配慮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民俗　제전이나　활쏘기等　伝統的인　것을　啓発함으로써　南北韓統合의　共通的　文化基盤을　造成시킬　수　있다.　세째로　韓国文化의　現実的　参与의　심각한　계층적　차이성을　除去하고　最大多数의　참여의지를　集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韓国社会에서　体育이나　오락시설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골프場이나　무도場의　特権性이　排除되어야　한다.

네째로　韓国文化의　혼돈을　건전한　것에로　유도하기　위해서　매스

콤이나 大衆文化의 質的인 상승화가 강구되어야 한다.

(B) 長期的 政策 : ① 北韓文化의 本質的 実態와 変化를 계속적으로 把握하기 위한 研究機関이 政府의 부속기관, 특히 統一院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統合的인 방안까지 摸索하게 한다. ② 北韓文化의 취약점의 하나가 적응성이 약한 점이다. 이러한 事実을 考慮하여 새로운 価値観 또는 文化的 潮流를 北韓社会에로 流入하게 함으로서 이러한 効果를 얻을 수 있다. 즉 새로운 文化潮流를 認識, 接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方法의 하나가 곧 閉鎖的 北韓社会를 開放的인 것으로 유도하고 南北韓의 文化交流의 可能性도 摸索되어야 한다. ③ 国際機構의 活用과 이곳에서 北傀의 代表者와 自然的인 接近을 通하여서나 또는 第3国에서의 韓国文化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文化的 소개를 徹底히 計劃的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④ 韓国社会에서의 統合의 主体的 勢力을 形成하여 이들에게 使命感을 부여하고 歷史的 課業임을 認識시킨다. 이러한 目的에서 教育内容의 検討와 成人再教育制度를 統一이나 統合에 대비하여 時急히 강구되어야 한다. ⑤ 各地域 各団体마다 核心的인 人士를 選定하여 가칭 「統一의 役軍」으로 임명하여 이들의 活動을 통한 北韓社会의 反民族的 特性을 暴露하고 統一의 教育, 弘報活動을 담당하게 하고 이들을 통한 定期的 統一集会를 개최하게 한다.

Ⅵ. 結　　論

以上에서 南北韓 文化構造의 単一的 統合을 위한 몇가지 政策을 設定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部分的이고 또한 例示的인 것에 불과하다.

다만 政策의 考慮는 우선적으로 北韓文化構造의 弱点을 찾아내서 이를 最大限度로 逆利用하여 北韓文化를 파과하여야 하고 또한 北韓文化의 強点을 最大限으로 逆利用하여 韓国文化의 弱点을 克服하여야 한다.

韓国의 統一은 政治的 統合이 단순히 表面的이라면 가장 真実된 絶対的인 統合은 文化的인 것에로 도달할 때이다. 즉 文化的 統合이 이루어져야 完全한 南北韓統合이 이룩되는 셈이다.

이러한 統合의 効果를 얻기 위한 戦略의 우선적인 考慮는 韓国社会의 文化的 統合이 強力하게 이룩되고 思想的인 主体性이나 統合의 勢力이 形成될 때 統合의 可能性은 더 한층 농후해진다.